금주의 법구-〈법구경〉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악담은 돌고 돌아 고통을 몰고
끝내는 나에게 되돌아 오네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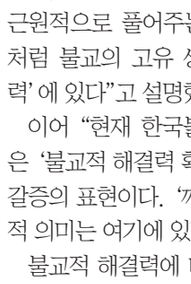
1994년 10월 15일 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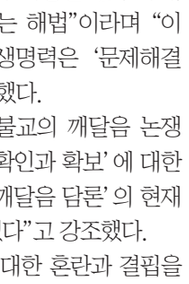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5월 1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01호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 불교적 문제해결력 확보가 '깨달음 담론' 현대적 의미

## 박태원 울산대 교수, 〈불교평론〉여름호 특집서 주장






**韓불교 '깨달음'에 흥분하는 건 불교적 문제해결력 없기 때문**

**'깨달음 담론' 위한 선결 과제**

**北傳·南傳 통섭, 실용불학 제안**

**현재적 관심으로 해결력 구현**

**서구 '박물관불교학'서 벗어나야**

올해 새해 벽두,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깨달음은 이해'라는 주장을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비판함으로써 다시 촉발됐던 '깨달음 논쟁'이 한국불교의 향상을 이끄는 담론화로 발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사진〉는 〈불교평론〉 여름호 특집 '깨달음에 관한 8가지 담론'에 기고한 논문 '깨달음 담론이 갖추어할 조건들'에서 깨달음 논쟁이 일회성 소란으로 그치지 않고 발전적 담론으로 자리잡기 위한 요소들을 살폈다.

박 교수는 현응 스님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된 깨달음의 논쟁은 돌출적 주장이 아니라 간화선에 대해 누적되고 있는 비판적 인식이 승단 내부에서 표출된 '예비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간화선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승단 내부에서 공론화되는 계기가 형성된 것은 의미가 각별하다"면서 "이 질문에 '어떤 내용으로 응답하느냐'는 것은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어떤 내용으로 응답할지에 앞서 현재 한국불교의 상황을 진단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역사상 지금처럼 불교에 대한 소상한 지식과 정보가 용이하게 유통된 적은 없다. 단순히 인터넷 검색만으로 불교 지식에 대한 갈증은 대부분 해소된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법회와 강좌가 지금처럼 많이 열린 적도 없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불교인들이 '깨달음 논쟁'에 유독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박 교수의 대답은 "불교의 정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이다. 즉, 삶에 대한 불교적 문제해결력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갈증이 채워지지 않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부처님의 법설은 지금 여기에서, 삶의 불안과 상처에 대한 문제들을, 경험과 선택이 가능한 범주에서, 근원적으로 풀어주는 해법"이라며 "이처럼 불교의 고유 생명력은 '문제해결력'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불교의 깨달음 논쟁은 '불교적 해결력 확인과 확보'에 대한 갈증의 표현이다. '깨달음 담론'의 현재적 의미는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적 해결력에 대한 혼란과 결핍을 초래한 이유로 박 교수는 △남방불교 전통과 북방불교 전통이 직접 조우하면서 발생한 상호 불화 △불교의 문제해결력을 현재적 시선으로 포착·발굴하는 관심이 처음부터 결여된 근현대 불교학의 속성을 꼽았다.

오로지 '간화선만이 최상승 수행법'이라는 주장과 '대승전통은 불교가 아니다'는 상호 대립은 대중들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박 교수는 "각 전통에서 수립된 교학과 수행, 신행 등의 해석학적 차이들을 그 어떤 전제에도 갇히지 않고 현재적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의 불교전통들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설과 불교적 문제해결력을 온전히 포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구 '박물관 불교학'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현대불교학은 '실용불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실용불학에 대해 박 교수는 "문제해결의 불교적 방식이 지닌 사용가치를 현재적 관심으로 포착해 발전·구현시키려는 가치지향적 탐구"라면서 "이것은 실존의 문제해결을 위해 불교적 통찰을 학문적 깊이에서 길어 올리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적 문제해결력을 현재적 관심으로 발굴·구현하는 데 집중하는 실용불학의 태도, 이를 토대로 남전과 북전의 전통을 통섭적해 제3지대로 나아가는 것이 '깨달음 담론'의 핵심 구성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교평론〉여름호 특집 '깨달음에 관한 8가지 담론'에는 △깨달음 논쟁, 그 오래된 역사(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 △대승불교에서 깨달음의 문제(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 △선불교의 본래성불의 의미(변희욱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 △인지과학에서 바라본 깨달음(양해림 충남대 교수) △유교의 깨달음에 대한 비판과 의미(최일범 성균관대 교수) △깨달음은 탐진치를 해소해주는가(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등의 논문이 실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바탕 춤사위로 호국영령 기립니다** 현충일인 6월 6일 신촌 봉원사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가 중요무형문화제 제50호인 영산재가 1000여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졌다. 사진은 영산재보존회 소속 스님들이 흥겹게 바라춤을 추는 모습이다. 영산재보존회는 매년 현충일에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영산재를 열고 있으며, 이번 영산재는 28번째다. 영산재보존회는 다음날인 7일 봉원사 경내에서 제1회 인류무형문화유산 축제도 개최했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 "만공 스님, 만해의 독립자금 지원했다"

##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새로운 증언 '눈길'

**경허만공선양회장 옹산 스님 녹취본 本紙에 전해와**

만공 스님이 일제시대 당시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와 주목을 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5월 21일 하안거 입재법회서 만해 스님의 상좌인 춘성 스님으로부터 들은 만공 스님의 항일 독립운동 활동을 전했다. 이 증언은 경허만공선양회 회장 옹산 스님이 녹취해 본지에 전달하면서 알려졌다.

설정 스님은 입재법회서 "1987년 입적한 만해 스님의 시자 춘성 스님은 평소 만공 선사께서는 일제 때 돈이 좀 생기면 은밀히 선학원에 가셔서 만해 스님을 오시라 해서 돈을 주시곤 했는데 그것은 항일 독립자금이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설정 스님은 "춘성 스님은 우리 스님(만해 스님)이 항일운동에 적극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만공대선사 같은 분의 숨은 노력 덕분이라고 항상 말씀하셨다"며 "지금까지도 탄신일과 추모일에는 만공 선사의 일화를 음미하며 긍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스님은 "이 같은 취지의 말씀이 생각나 지난해 10월 20일 열린 만공선사 학술세미나서 법문할 때 언급한 바 있지만 다시 대중들 앞에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었다"라며 "만공 스님은 일본총독에게 불교진흥책의 부당함을 말하고 호통친 것 외에도 음으로 양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설정 스님은 은사 원담 스님이 생전에 했던 말도 기억을 되살려 전했다. 만공 스님 시자였던 원담 스님은 1985년 당시 독립기념관 건립에 8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는 원담 스님이 1년간 준비해 개최한 서예전 수익금 전액이었다.

**안거 입재서 춘성 스님 일화 전해**

**"만해 스님의 항일 운동 뒤에는 만공 스님의 지원 등 노력 있어"**

**"독립운동가 선정돼야" 여론 높아**

설정 스님은 "은사 스님도 만공 스님의 영향을 받으셨다. 평소 만공 선사와 같은 분들을 생각하면 나라에 일조해야겠다고 늘 말씀 하셨다"며 "2008년 입적하신 원담 스님이 지금도 계신다면 더 구체적인 증언을 해주셨을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이 같은 증언에 대해 경허만공선양회 회장 옹산 스님은 "만공 선사의 항일 독립 활동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투옥되거나 일선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인물 지정을 거부하는 정부의 입장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많은 국내 학자들이 당시 31본산 주지 중 유일한 창씨개명 거부와 관련한 만공 스님의 활동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특히 원불교 백과사전 등에는 만공 선사를 이미 독립인물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시책이 미래세대를 위한 모범적인 인물을 독립운동가로 지정한다는 취지라면 마땅히 만공 스님도 독립인물로 지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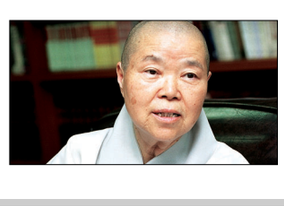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만공 스님의 독립운동가 지정에 대한 보훈심사서 "1937년 2월 27일 조선총독부에서의 '선기발로' 사건에 나타난 것은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지만, 1941년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선학원서 개최된 고승법회의 식순에 포함된 위령제와 1941년 4월에 출범한 조계종의 고문이라는 사실로 독립운동가 지정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만공 스님이 1941년 4월 조계종 출범시 종무고문이었으나 고문은 종무원 직사에 포함되지 않은 직이었고, 만공 스님은 해방전까지 조계종 회의, 행사에 일절 참여한 기록이 없는 등 일체의 종단 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만공 스님의 독립 정신에 대한 흠결이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주일 기자

1101호 INDEX

시방세계 5
사찰음식점 '마지'
종교음식과정 수료 현장



그대는 자비보살 14·15
명성 스님
운문사 회주
전국비구니회 원로의장






전주페이퍼가
친환경 종이로 또 한 발 앞서갑니다

전주페이퍼는 친환경 종이 활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주페이퍼의 대부분 제품들은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부터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전주페이퍼의 친환경 종이는 환경과 재활용을 생각하는 고객과 미래가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인쇄적성이 좋아 색상재현에 있어서도 뛰어납니다. 또한 불투명도 및 하이벌키(High Bulky)한 특성을 그대로 살려 어디에서든지 부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전주페이퍼